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분석의 필요성 고찰

-과학적·예방적 사회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The Necessity of A Cognitive-scientific Analysis on A Security-threat Act -The Foundation for A Establishment of The Scientific Preventive Social-security Countermeasure-

김 두 현* · 손 지 영**

<목 차>

I. 서론	III.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한 경호위해행위
II. 인간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의 이론적 고찰	분석
	IV. 결론

<요 약>

일반적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경호는 “경계하고 보호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불의의 침입이나 다양한 사건 사고로부터 경계하여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호는 모두 위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호위해행위는 본질적으로 형법상의 범죄행위의 개념 범주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형법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이러한 위해행위를 오늘날 주목되어지고 있는 뇌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둔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영역의 관점에서 재조명 해보고, 이러한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예방적 사회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로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행위를 그 본질로 하는 경호위해행위에 대해 경호학적 관점과 형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경호위해행위도 인간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이를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에 앞서 인지과학이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해 경호위해행위를 분석하면서,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인지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인지과학, 경호위해행위, 범죄행위, 정서논리체계, 과학적 예방대책

* 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법학박사(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법학박사(공동저자)

I. 서 론

일반적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경호는 “경계하고 보호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불의의 침입이나 다양한 사건 사고로부터 경계하여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김두현, 2008:19),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서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경호는 위해행위로부터 보호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호업무의 목표는 암살, 납치, 혼란, 신체적 상해 등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주도면밀하고 실제적인 범행의 성공기회를 최소화하고 자연적, 물리적 위협 요소에 대비하여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데에 있다(장기봉, 2007:15). 이러한 다양한 위해결과유형들은 테러리스트나 특별한 범행목적을 지닌 위해분자에 의하여 철저한 계획에 의해 실행되어지는 “계획적 위해”, 상호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세력 집단 혹은 소영웅주의자가 우연한 기회의 조우로 인하여 발생시키거나, 재물이나 산업기밀 등을 탈취하거나 절도하기 위해 침입하였다가 자신의 신변의 위해를 인식하고서 급변하여 야기되는 “우발적 위해” 그리고 갑작스럽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사고로 인한 “돌발적 사고”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해행위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경호기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경호작용은 이러한 위해행위의 결과유형에 따라 계획적 예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두현·최병권, 2008:45). 먼저 계획적 위해는 범행의 동기가 개인적 이유이든 특정 조직이나 단체에 의한 것이든 그 특징상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범행대상의 결정과 범행계획의 수립, 위해의 실행과 증거인멸을 위한 현장의 훼손 및 도주·자살에 이르기까지의 면밀한 계획과 모의훈련을 통해 완벽한 범행을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계획적 위해와 함께 주로 인적 취약요소에 의한 위해로 인위적 위해에 해당하는 우발적 위해는 현금이나 고가의 물건을 강도·절도하기 위해 경호대상자의 주거지 혹은 기업의 중요시설에 대한 무단침입을 한 후 원래 목적과 달리 우발적으로 신체에 대한 납치, 강간 살인, 방화 등의 범죄로 변질되어지는 유형의 위해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적 위해와 우발적 위해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행위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방 및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호위해행위의 유형들에 대해 그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경호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형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형법상 범죄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경호학상의 경호위해행위들은 형법상 살인죄, 상해죄, 방화죄, 증거인멸죄, 도주죄, 재물손괴죄 등 형법각칙상의 여러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논의가 바로 행위론의 범주인 것이다. 즉, 경호위해행위는 다시 말하면 형법상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은 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이며, 이러한 형법적 고찰대상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이다. 이 인간의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그러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¹⁾이 오늘날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오는 견해이다. 따라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게 형벌이라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범죄인가’의 문제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것은 범죄가 형벌의 근거가 되게 하는 것이다.

형법에 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자의 행위는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모든 범죄에 공통된 구성요건은 과연 어떠한 요소로서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행위에 관한 논의는 그간 지나치게 이론구성 자체에 치우친 논쟁으로, 오늘날은 이론의 정합성 이외에도 실용성도 중요시 되고 있어서 더 이상 중시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필자는 기존의 논의가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데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대륙법체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적 검토에 치중하여, 기존의 체계적 검토가 주는 여러 가지 실익들, 즉 평등(공평)한 법적용에 기여하며, 과학적·합리적·분석적 사고에 기여하고, 사고의 질서와 명료성 및 포괄성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사고의 경제와 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들(임웅, 2005:113).을 퇴색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든다.

그러나 행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형법이론구성상 기본이 되는 대전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새로이 행위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우선 대상의 고찰과 인식을 위한 방법론을 근본적으로 재성찰하면서, 그 대상의 인식 내지 기본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출발점이 새로운 착상에 서고자 하며, 이에 행위자의 행위에서 읽을 수 있는 내면세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형법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이러한 경호위해 행위를 오늘날 주목되어지고 있는 뇌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둔 인지과학이라는 학

1) 오늘날의 범죄론 체계구성에 있어 그 원형은 벨링의 『범죄론』에서 찾을 수 있다(김종원, “범죄론의 체계구성”, 고시연구, 1995. 11, 94면; Beling, E., Die Lehre Vom Verbrechen,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1906, S.7).

문영역의 관점에서 재조명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예방적 사회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로서 삼고자 한다. 다음에서 경호위해행위도 인간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이를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영역의 이해를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II. 인간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의 이론적 고찰

1. 인간의 마음과 행위에 대한 과학적-구조주의적 접근²⁾

인간이 다른 생물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성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그 마음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가 앞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은 각종 대상을 알게 되며, 언어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서, 이 모두를 마음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지한 내용을 유형화 하고 조직화한다.³⁾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물음은 예로부터 반복해서 던져온 물음으로, 고대 그리스 이후부터 17세기까지는 주로 철학자에 의해 제기되어져, 자신의 내적 상태를 내성적으로 관찰해 사변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그쳤다. 19세기 후반 심리학이 실험심리학의 형태로 독립된 과학으로 출발한 이후, 이러한 물음은 마음의 과정과 기능 및 구조에 대한 심리학적 물음으로 제기되어, 그 답을 구하는 접근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

그러던 중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는 특히 뇌과학의 발달, 유전자 해독, 사이버네틱스, 정보이론,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보는 틀이 마련되어, 이 보는 틀에 의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새로운 체계가 형성되었고, 이 체계는 인지주의(Cognitivism) 또는 정보처리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틀 하에서 심리학은 새로이 구성되었고, 그 구성은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이라는 종합과학의 형성으로 많은 관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⁴⁾은 인간과 과학, 자연현상을 보는 관점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하였다.

2) 인지과학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우리나라 및 외국의 최근 동향 파악은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인지과학협동과정(석박사통합과정) 이정모 교수의 홈페이지 <http://cogpsy.skku.ac.kr/> 참고.

3)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존재는 앎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즉 앎을 통해서 개인은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또 다른 동물과는 차별화된 문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자기라는 개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심리학자 스페리(R. Sperry, 1995)는 인지혁명(cognitive revolution)을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과학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정모, 인지심리학 : 형성사·개념적 기초 · 조망, 아카넷, 2003, 19면).

인지주의 혁명은 정보적 세상을 가능하게 했고, 인간의 삶과 그에 대한 이해 자체를 바꾸어 놓음으로서, 과학에서 마음과 물질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보는 관점과 접근방법을 대폭 변화시켰다. 이러한 인지주의가 학문적 틀로서 구현된 것이 종합적·학제적 과학인 인지과학이며, 이 인지과학의 핵심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이다. 이는 인지주의 혁명의 중심에 있으며, 심리학 자체를 변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지과학이라는 새로운 종합적·학제적 과학을 형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인간, 컴퓨터 그리고 생물체 관련 학문들의 연결고리적 학문으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리학과 인접 학문을 변화시키고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형성된 인지심리학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접학문들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데, 수학이 자연과학의 기초이듯이 인지는 심리학의 여러 분야와 인지과학의 기초 학인 것이다. 이러한 인지심리학을 이전의 그리고 동시대의 다른 심리학과 차별화하는 큰 특징은 인간의 마음을 그 구조와 작용에 있어서 하나의 독특한 보는 틀,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점인데,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정보처리체로 보고, 마음에서 각종 정보가 어떻게 입력, 형성, 저장, 활용되는가 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심리현상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즉 정보처리라는 패러다임(Information Processing Paradigm)하에서 심리현상을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심리학과 인접 학문 간의 상호작용에서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매우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 것은 인지과학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Gardner, H., 1985; 이정모, 2003:50). 인지심리학, 컴퓨터과학의 인공지능학, 언어학, 철학, 인류학 등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형성한 다학문적·학제적 과학인 인지과학은 인간의 지(知)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다학문적 입장에서 분석, 설명하려는 노력의 결집인 것이다. 또한 인지과학은 인문사회과학 대 자연과학이라는 이분법적 학문분류체계가 부적합한 분류임을 보여주었으며, 마음 또는 인지라는 현상이 여러 분야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⁵⁾ 즉 인지심리학은 넓은 의미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how the mind works)』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환경과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앎을 갖게 되는가, 그러한 앎을 어떻게 활용하여 각종 생활 장면에서의 과제를 수행해 내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심리학 분야인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인지심리학은 기본적인 “보는 틀”로서 정보처리적 관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본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정보처리체계로 간주하고, 인간의 내외적 정보의 처리과정과 지식표상의 본

5) 오늘날 법학 관련분야에서도 우리나라 배심 및 참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인지적 관점에서 배심원의 수 결정의 문제, 배심원 지침서 작성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우리의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뇌지문영상측정기법을 사용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참조하고 있다.

질을 경험적·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인지심리학은 주의, 형태지각, 학습, 기억, 언어처리, 문제해결적 사고, 추리, 판단과 결정 등의 인지과정을 중심으로 인간 마음의 정보처리적 과정과 내용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특히 실험적 방법을 주로 사용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위자의 행위는 각종 생활장면 내에서 인간의 내적·외적 자극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변형시키며, 산출해내는 고등정신활동이며, 마음은 이러한 「심적 과정(process)」과 그 대상이 되는 정보를 「내용(content)」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심적 과정들에 의해 획득, 보유, 산출, 활용되는 지식, 마음을 구성하는 실질 즉 마음의 내용을 「표상(表象, 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내외적 정보의 내용을 심적 표상으로 형성, 보유, 변환, 산출, 활용하는 과정이 바로 「인지과정」인 것이다(이정모, 2003:24-25).

21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mind), 뇌(brain), 행동(behavior)과 법의 관계를 연구하고 실제에 적용하는 연구와 응용의 흐름이 점차 '법심리학'에서 '법인지과학'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인지과학의 몇몇 연구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첫번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을 중심으로 한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인간의 추리과정은 물론 판단과 결정과정이 법학, 경제학 등이 이전에 상정하였던 논리적 이성의 합리적 과정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다른 한 흐름은 198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한 진화심리학적 접근의 영향이며, 세번째는 20세기 말에서 급격히 발전한 신경과학, 특히 인지신경과학의 발전의 영향⁶⁾이다.

인지과학은 다른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마음·행동현상을 대상화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또 연구하여야 한다는 자연주의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곧 인지주의 패러다임의 기본입장이다. 이 때 뇌는 물질이므로 자연과학인 생물학에서 연구하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면 되지만,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대상화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진다. 이에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의 핵심 특성을 앎이라고 보고 앎의 내용과 과정 곧 지식과 지적과정을 정보와 정보처리의 개념으로 바꾸어 접근하려고 한다. 앎의 과정과 내용을 정보와 연관된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논리학

6) 신경과학 연구에서, 인간의 인지(이성)에는 항상 정서(감정)가 밀바탕에 놓여 있다는 인지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는 앎의 두 부분과 연결되어, 법·법적 판단·준법 및 위법 행동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재조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신경과학의 최근의 경향, 즉 사회신경과학(social neuroscience) 인지사회신경과학(cognitive social neuroscience), 인지사회정서신경과학(cognitive, social & affective neuroscience) 분야가 각광을 받으며 또 다른 연구 영역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의 인지신경과학 경향은 사회현상의 신경과학적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과 관련된 행동(피의자, 판사 등의 뇌신경과정 포함)의 이해에 신경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었다(<http://cogpsy.skku.ac.kr/study/study.html> 참조).

수학 컴퓨터과학에서 논하는 술어(predicate)논리나 프로그래밍언어라든가 정보흐름도(information flow diagram)나 자료구조도(data structure diagram)와 같은 형식화된 개념적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기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뇌의 신경생물적, 신경생리적 과정과 연계하여 관찰하고 이론화함으로써 객관성과 경험적 증거라는 과학적 방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의 핵심에 바탕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사고체계를 정보처리체계(IPS: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이정모, 2003:252).

2. 마음의 작용에 대한 정보처리적 개념 설정

1) 뇌 속의 표상과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처리적 개념 설정

인지과학에 있어서의 주된 연구대상인 마음은 각종 정보를 획득 저장 인출 변형 및 활용하는 복합적인 정보처리기관 체계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물리적 대상 자체를 인간 마음속에 그대로 도입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을 추상화하여 상징화하여 즉 표상화하여 그에 대하여 마음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사물에 대한 인식 및 이해과정 그를 통해 상징으로서 두뇌기억에 표상(represent)되는 원리, 지적능력을 구현하는 뇌의 구조와 기능 컴퓨터를 이용한 지능의 분석이나 형식화 문화인류적인 인지형태의 분석 그리고 각종 인공물에서 지(知)가 구현되고 또 인공물을 활용하는 양식 등과 같은 제반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인지과학이다. 인간은 실제대상을 어떤 상징이나 다른 형태로 재표현하여 즉 추상화하여 다루는데, 이에 앞의 정보를 '표상(representation)'이라 한다. 즉 실물 자체가 아니라 다시(re--)나타냄(presentation)의 결과⁷⁾가 우리 마음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시(re--)나타냄(presentation)의 과정 가운데에서, 생물학적 인지이론의 인식 개념과 정신분석학의 인식 개념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정서적-인지적 연관체계 이론(die Theorie vom affektiv-kognitiven Bezugssystem)에 있어서의 유기체의 「자기재생산(Autopoiese)」 기능이 작용하게 된다. 모든 유기체는 어떠한 기관을 통한 외부자극으로 인해 감각활동을 하고 이러한 감각활동을 통하여 정신적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이러한 유기체의 구체적 작용활동들이 바로 유기체의 「자기재생산」⁸⁾이라고 지칭되어지는 것이다. 이와

7)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의 머리 속에 사랑하는 사람 실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심상(image)이라던가 다듬어진 생각이나 언어화된 일화나 감정에 대한 기억이 들어있는 것이다 자동차 한대 자동차세대라는 생각도 대상자체가 아니라 위의 그림과 같이 표상되어서 우리 마음에 남는다고 본다. 즉 실제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나타내어 표현되어' 추상화되어진 어떤 내용이 상징으로 표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마음의 내용들이 곧 표상인 것이다.

같은 자기재생산을 하는 조직의 행동들에 있어서의 득과 실은, 쾌(Lust)와 불쾌(Unlust)라는 정서가 드러내어 주는 것으로, 이에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생명유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정서는 생물학적인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삶에서 중요한 쾌와 불쾌의 정서에 대한 정보를 형성하기 위해, 정보를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면화(다시 나타냄, re-presentation)하고 행위지침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인지적 도식인 것이다.

인지과학의 정보처리적 패러다임은 마음에 대한 “보는 틀”을 이와 같이 상정하고 나서 정보처리체계로서의 마음의 작용을 감각, 지각, 학습, 기억, 언어사고, 정서 등의 여러 과정으로 나누는 다음, 각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처리가 일어나는가와 각 과정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묻고, 다음으로 각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지식구조 즉 표상구조가 관련되는가를 규명하려 한다. 따라서 마음의 현상 심리적사건은 정보의 내용 및 정보를 처리하는 사건으로 개념화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위에서 정보처리적 패러다임의 인지과학은 인간의 삶의 과정 즉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es)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해 나간다. 그 까닭은 정보처리의 본질이 자극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부여하며 이를 정보로서 활용하며 그 결과를 내어놓는 과정 곧 각종 앎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인지과학이 전제하는 핵심적인 사고는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가 하드웨어는 다르지만 정보처리라는 공통적인 원리를 구현하는 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이라는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를 동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지과학과 컴퓨터과학에서 생명체의 하드웨어인 뇌와 신경계를 기초로 한 이론인 신경망이론이 나오고 또 신경과학과의 연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간주하는 인지주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의 물리적 구현체인 두뇌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본다. 따라서 마음 뇌 컴퓨터 모두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는 ‘정보처리적 관점’에 묶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처리’라는 상식적 용어가 인지과학의 학술적 용어로 ‘계산(computation)’이 되며, 이 계산 즉 컴퓨테이션이 인지과학의 한 핵심 개념이 된다.

8) 자기재생산 체계(Das autopoietische Systeme) 개념은 스스로 형성하고, 스스로 조직하며, 스스로 기준이 되는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 마투라나는 자기재생산성을 생명체에만 타당한 개념으로 보았고, 루만(Luhmann)은 생명, 의식, 사회체계들의 자기재생산성을 인정하면서 그 요소를 분자, 사유, 의사소통으로 보고 있다. 또 자기재생산 체계는 자기재생산 조직들이 나타나는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직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표지는 각각의 요소들이 순환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체계의 조종적 폐쇄성을 읽을 수 있고 이로부터 구조결정적 행동이나 상태결정적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여러 가지 자기재생산적 체계가 연속적으로 동조하는(자극반응하는) 행동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자기재생산적 체계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매체들을 통하여 다른 기관들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다(Kargl, W., *Handlung und Ordnung im Strafrecht*, S.577).

2) 정서-논리적 정보처리 개념의 설정

인지과정이 수행되어지는 동안 행해지는 정서의 개입은 자동적이며 필수적인 것이라는 데, 정서의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서에 관한 인지과학적 관점을 통해 우리는 행위자의 정서가 의사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http://cogpsy.skku.ac.kr/psychology_ellipsoid/정서이론개관.htm).

우선, 동기(motive)-각성(arousal) 이론과 정신생태학적 관점으로는, 정서를 유발 조건으로 보고 다양한 심리적 처리과정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리퍼(Leeper)의 관점과(Leeper, R., 1963: 238-248), 신경생리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평가와 동기를 고려함으로써 인지적-정보처리적 이론으로 발전시킨 프리브램(Pribram)의 관점(Pribram, K., 1970: 41-54), 다윈(Darwin)의 영향을 받아 정신생태학적 접근을 사용한 플루치크(Plutchik)의 관점(Plutchik, R., 1984: 197-220)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정리해 보면, 정서는 단지 생리적 각성의 한 측면이 아닌 동기적 기능을 하는 혹은 동기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정서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연구인 인지-각성 이론은 정서적 상태를 생리적 각성과 그 각성의 원인에 관한 인지 둘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고, 정서가 인지적 활동에 의해 매개된다는 주장으로 사처(Schachter)와 싱어(Singer)에 의해 전개되어졌다(Schachter J./Singer, S., 1962: 379-399). 목표와 관련하여 정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사이먼(Simon)은 정서가 사람이 중요한 목적에 각성하도록 하면서 인지를 통제·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imon, H., 1967: 29-39).

최근의 이론들을 살펴보면, 인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서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즉, 인지는 정서에 중심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정서 역시 인지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서적 반응과 경험은 기억 등과 같은 인지에 영향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인지의 유형을 결정해 주기도 한다. 인지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지는 정서 개념은 형법상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개념으로,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형법상 행위와 고의를 설명하고 있는 독일의 법학자 카글(Kargl)도 이처럼 정서가 인지의 내용을 유형화하고 조직화한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 즉 인간의 인지(이성)에는 항상 정서(감정)가 밑바탕에 놓여 있다는 인지신경과학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형법상 행위론을 구성함에 있어, 기존의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에서 확인되어진 행위 구성에 더하여, 인지의 중요 작용요소의 하나로 확인되어진 정서 개념을 행위론 구성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구성요소와 인지적 구성요소를 그 작용에 있어 전체로 통합시키는 의미를 지닌 “정서적 인지적 연관체계” 개념을 기초로 하는 인지적 행위론에 대해 검토해, 위해행위를

분석하면서,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인지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Ⅲ.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한 경호위해행위 분석

1. 경호위해행위의 다양화 및 흉포화 경향

주지한바와 같이 경호의 안전작용이라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탐지, 봉쇄, 제거함으로써 허점이 없는 완전무결한 방책을 강구하여, 경호대상자의 절대안전을 도모하는 예방업무로 정보, 보완, 안전대책작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호위해요소에 해당되는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들을 사전에 탐지하여야하는 것이다. 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사전 인지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호의 환경으로는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반적환경과 암살, 테러, 유격전 등 특수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경호일반적 환경 요인으로는 경제발전, 생활환경의 악화, 동력 및 정보의 팽창, 국민의식의 변화, 범죄의 다양화와 증가 등을 들 수 있다(김두현, 2008: 353-357). 그리고 특수환경 중 현대테러리즘의 경향을 보면 반체제테러리즘(범죄, 허무, 민족, 혁명), 체제측테러리즘(자경단, 비밀공작원, 공무집행, 대량살상), 무차별적 테러리즘(군사, 종교, 이념, 경제·금융, 보복, 문화, 정보·전자, 핵·원자력, 군반란, 맹목적 국가개입, 환경, 문서, 관료, 미디어 등) 등 다양화와 흉포화로 나타나고 있다(김두현, 2004: 61-74).

이러한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예방적인 사회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2. 형법상 행위에 대한 개념변화의 분석

형법상 행위에 관한 학설들 중 오늘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존재론적 방법과 규범적 방법의 절충이라는 평가(이재상, 2005: 82)를 받고 있는 사회적 행위론⁹⁾이다. 이 사회적 행위론 이전의 행위론으로는 먼저, 19세기 이래 발전한 자연과학의 영향에 힘입어 형법에 있어서 행위는 외부적인 인과의 경과와 내부적인 의사의 내용이라는 두 개의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는 시각에 따라 행위를 의사에 의해 외부세계에 야기된 순수한 인과과정

9) 독일의 형법학자 슈미트(Eberhard Schmidt)가 주장한 이래 오늘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Kausalvorgang)으로 이해한 인과적 행위론¹⁰⁾이 있다(Jakobs, G., 1983: 107). 이후 이러한 인과적 행위론이 행위를 자연주의적·기계적으로 전제한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목적적 행위론이 대두된다. 1930년대 초반에 독일의 형법학자인 벨첼이 주장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정비된 이론인 목적적 행위론은, 인간의 행위는 목적활동의 수행이며 이것이 외부의 인과과정을 목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보며, 인간의 행위가 동물의 행태나 자연 현상 등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인간의 ‘목적성’ 내지 ‘목표지향성’에 있으므로 이 목적성을 행위의 본질적인 요소로 본다.

이러한 양 행위론에 대한 비판적 수렴으로서 인과적 목적적 토대위에 세워진 사회적 행위론(손해목, 1989: 2)은 인과적 행위론이나 목적적 행위론의 경우처럼 고유의 철학적 배경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 행위론에 대한 전면부정 또는 일부긍정의 토대 위에서 전개된 행위에 관한 하나의 이해로서, 사회적 행위론의 형성과정은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의 기능적 발전과정을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행위 개념은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의 기능적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제3의 행위개념으로, 행위개념을 둘러싼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의 논쟁을 통해서 이룩된 제3의 행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Maihofer, W., 1951: 156; Maurach, R./Zipf, H., 1983: 196).¹¹⁾ 이러한 사회적 행위론(soziale Handlungslehre)을 처음으로 전개한 학자는 슈미트, 그는 「행위는 사회적 외계(soziale Außenwelt)에 미치는 유의적 행태」라고 설명하고 있다(Jescheck, H., 1951: 158; Liszt, F./Schmidt, E., 1927:154.).

행위의 심리적·정신적 영역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인격적 행위론과 관련하여, 록신(Roxin)은 행위를 ‘인격의 발현(Persönlichkeitsäußerung)’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Bloy, R., 1978:649), 결국 행위란 그에 의하면 심리적·정신적 활동중심인 인간에게 귀속되는 모든 것이다.

형법상 행위이론들 가운데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그리고 사회적 행위론이라고 하겠다. 인과적 행위론은 행위의 존재론적 측면을 도출한 것이고, 이후 인과적 행위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행위론은 행위의 존재론적 토대에 인식론적 측면을 도출시켰으며, 나아가 사회적 행위론은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적인 측면에서의 벗어난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재론적 측면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

10) 이러한 인과적 행위론은 벨링(Beling), 리스트(Liszt), 메츠거(Mezger)등에 의해 대표된다.

11) 지프(Zipf)는 사회적 행위론은 종전의 행위론(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의 역사적·기능적 발달(entwicklungsgeschichtlich und funktional)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마이호퍼는 사회적 행위론이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의 논쟁 중에 형성된 형법상의 제3의 행위개념이라고 하고 있다.

이론 모두를 통해 비로소 우리가 행위를 바라보기 위해 필요한 관점들이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행위론의 발달사에 있어 벨첼의 목적적 행위론은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본다. 그가 비록 목적적 지배조종과 자유로운 자기결정이라는 것으로 행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한 내심의 특정한 상태를 도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가 자신의 시대를 풍미하던 사조들의 영향을 형법상 행위론에 적용하고자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과학이 정의한 인간의 사고의 핵심인 인지개념은 적어도 형법에는 적용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인격적 행위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격이란 나 자신의 총체이면서 그 형성과정에서 사회적 영향 하에 있는 것으로 위의 행위론들을 총체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의 시도라고 평가하고자 한다. 인간의 행위에 관한 인지과학적 고찰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는 충분히 설정되었다고 본다. 이제 이하에서 형법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한 행위 개념의 정립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3. 형법상 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인지과학적 관점은 존재와 인식에 관한 다차원적 종합적 검토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상 행위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통섭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을 비판적으로 통합 발전시키려는 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행위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형법상 행위론은 먼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 밖의 자연발생적 사태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를 규명하고, 그것들이 행위를 결정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증주의적 접근법과 관념론적 접근법이 있는데, 인과론자들은 행위사태란 수단·조건·상황이라는 경험적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보며, 목적론자들은 행위의 영역을 목적·목표·가치·이념이라는 규범적 범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론자들은 행위자에게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지적 기능들의 자력성(Eigenmächtigkeit)을 간과하고 있으며, 목적론자들은 행위가 지향의 가운데에서 흔들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구조의 자의성을 간과하고 있다(Kargl, W., 1991:510)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과론과 목적론의 전형적인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카글은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행위와 질서, 상황과 지향성, 공리성과 규범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행위론과 질서론의 극단적 입장을 통합하기 위해 파슨스의 “체계의 네 가지 기능적 요소(적응(adaptation)·목표설정(goal attainment)·통합(integration)·잠재(latency))

에 대한 도식”을 참조하였고(Kargl, W., 1991:511), 이에 주의주의(Voluntarismus)가 아닌 구조결정주의(Struktur- determinismus)가 카글 이론의 중심에 서게 된다. 또한 카글의 인지적 행위론은 파슨스의 네 가지 기능요소 도식과 함께 마투라나(Maturana)의 인지생물학을 기초로 하면서, 마투라나의 이론에서 등장하는 생명체의 자기재생산적 개념(auto-poietische Konzeption)을 파슨스의 네 가지 기능요소 도식에 집어넣어 사고를 전개하였는데,¹²⁾ 카글의 이와 같은 시도는 파슨스가 자신의 이론에서 관념론과 실증주의를 수렴¹³⁾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을 한 차원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행위는 그 조건적(인과적) 요소와 규범적(목적적) 요소를 동시에 지향한다는 가설은 행위질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적 요소, 즉 행위자가 행위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을 “결정”하느냐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한다. 카글은 파슨스처럼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취하게 되면 행위한다는 것(Handeln)은 “결정행동(Entscheidungsverhalten)”을 뜻하고, 행위 자체(Handlung)는 그러한 의사결정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 이 때 이 의사결정은 이후 사건의 경과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뜻한다고 정의하였다(Kargl, W., 1991: 514). 이와 같이 행위를 결정의 결과라고 정의한다면, 결정은 이전에 고려한 계획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 그 자체”이거나 “개입”도 아니다. 결정이 그 고유한 의미에서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말이다. 작위와 부작위 사이의 구분은, 외부세계에서 경험적으로 정해진 경과질서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내적 결정행동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다.

카글의 인지적 행위론은 “행위는 결정들의 결과이다(Handlung ist Ergebnis von Entscheidungen)”라는 명제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결정행동 질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선택이 다양한 선택 가능성 가운데에서의 “자유로운” 선택, 즉 의사자유의 측면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물학적 인식론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 결정주의(Determinismus)와 책임주의(Verantwortlichkeit)를 동시에 포섭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마투라나의 이론(Kargl, W., 1991:514)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서적-인지적 연관체계(affektiv-kognitives Bezugssystem)이론이다. 이 정서적-인지적 연관체계 이론(Die Theorie vom affektiv-kognitiven Bezugssystem)은 생물학적 인지이론의 인식 개념과 정신분석학의 인식 개념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피아제(Piaget)와 마찬가지로 치옴피도 모든 유기체는 어떠한 기관을 통한 외부자극으로 감각활동을 하고 이러한 감각활동을 통하여 정신적 성장을 이룬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구체적 행동

12) 카글은 파슨스의 행위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토대를 의사자유에 대한 고찰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잘못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였다.

13) 이 자기재생산 개념에 대한 사고는 파슨스의 사상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들을 유기체의 「자기재생산(Autopoiesis)」¹⁴⁾이라고 부른다. 자기재생산 조직에서 그 작용의 득과 실은, 쾌(Lust)와 불쾌(Unlust)라는 정서가 드러내어 준다.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생명유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정서는 생물학적인 기능을 지닌다. 이처럼 행위가 자기재생산 기능을 지니고 있는 점을 볼 때,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행위자의 정서적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는 인식에 필연적으로 이르게 된다. 삶에서 중요한 쾌와 불쾌의 정서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면화하고 행위지침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인지적 도식인 것이다.

결국 행위를 “결정행동(Entscheidungsverhalten)”으로 이해하면서 그러한 결정이 비결정론(Indeterminismus)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것인지에 대해, 앞서 논의되었던 “정서는 리”의 전제를 놓고 본다면 결정행동의 비결정론적 개념은 존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¹⁵⁾ 즉 심리는 조직구성적으로 볼 때 닫혀져 있으며 구조결정적으로 작동되는 자기관련적인(selbstreferentiell) 체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인지적 행위개념은 행위한다는 것을 상태에 의해서 상황지위된 결정행동으로 이해한다. 행위자의 내부에 존재하는 연관체계는 개인의 상호작용의 역사와 그 가운데에 녹아있는 개인의 의식 및 심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 볼 때 행위의사는 결코 체계 상태의 합법칙성 바깥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는 그러한 행위자의 상태 그 자체이며, 이러한 (정서논리적인) 상태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으로부터 규정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형법상 행위(경호위해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의 수렴은 이후 개별적인 경호위해행위를 실제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초에서의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위해행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자들의 내적 인지적 결정과정체계를 파악 분석 분류함으로써 인해 작성되어지는 데이터들을 통해 위해행위자가 위해행위를 결정함

14) 자기재생산 체계(Das autopoietische Systeme) 개념은 스스로 형성하고, 스스로 조직하며, 스스로 기준이 되는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 마투라나는 자기재생산성을 생명체에만 타당한 개념으로 보았고, 루만(Luhmann)은 생명, 의식, 사회체계들의 자기재생산성을 인정하면서 그 요소를 분자, 사유, 의사소통으로 보고 있다. 또 자기재생산 체계(Das autopoietische Systeme)는 자기재생산 조직들이 나타나는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직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표지는 각각의 요소들이 순환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체계의 조종적 폐쇄성을 읽을 수 있고 이로부터 구조결정적 행동이나 상태결정적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여러 가지 자기재생산적 체계가 연속적으로 동조하는(자극반응하는) 행동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자기재생산적 체계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매체들을 통하여 다른 기관들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Kargl, W., *Handlung und Ordnung im Strafrecht*, S.577).

15)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바인베르거는 본질적으로 “결정”이라는 것은 인지적으로 규정되는 대안들 사이의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즉 이는 세계에 대해 아는 것들과 가능한 사실들에 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들 사이의 것이라고 하고 있다(Weinberger, O., “Freedom, Range for Action, and the Ontology of Norms”, *Synthese*, 1985, S.307; Kargl, W., *Handlung und Ordnung im Strafrecht*, S.517).

에 있어 그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확인 정리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과학적·예방적 사회안전 대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과학적·예방적 사회안전 대책의 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과학적·예방적 사회안전 대책의 수립을 하기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각론적 실제적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인지적 결정 과정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의 형법상 행위(경호위해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의 수립은 그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위의 각론적 실제적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분석과 그에 상응하는 과학적 안전대책이 앞으로 그 후속연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IV. 결 론

심리학과 범죄학의 발달과정이 동시대의 과학의 발달과정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전개되어져 온 것과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행위론도 인과적 행위론에서 목적적 행위론에 이르기까지는 동시대의 과학사의 발달과정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그에 따른 입장의 변화에 따라 목적적 행위론은 인과적 행위론을 비판하면서 행위론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의 목적지향성을 확인한 후부터 오늘날 인지과학적 관점이 대두되어지기 이전까지는 인간의 행동원리에 대한 관점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형법상 행위론에서도 행위의 내적 측면이 아닌 그 사회적 의미에 핵심을 두는 사회적 행위론이 형성되었고 오늘날까지의 지배적 견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오늘날 인간 행동원리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과학적 관점을 행위론에 적용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과학사의 발달과 연관된 행위론의 발달사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순차적 시도인 것이다.

인간의 인지(이성)에는 항상 정서(감정)가 밑바탕에 놓여 있다는 인지신경과학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형법상 행위론을 구성함에 있어, 카글(Kargl)은 기존의 인과적 행위론이 “유의적 거동의 결과”라는 인과의 과정을 확정하고, 목적적 행위론이 유의적인 것의 의미를 “목적적 지배조건”으로 정의하면서 의사적 요소를 부각한 것에 더하여, 인지의 중요 작용요소의 하나로 확인되어진 정서 개념을 행위론 구성에서도 적용하여 인식·의사·정서의 상호연계적 “정서논리체계” 하에 형법상 행위론을 구성하는 인지적 행위론을 주장한다.

그는 행위론과 질서론의 극단적 입장을 통합하기 위해 파슨스의 “체계의 네 가지 기능적 요소(적응(adaptation)·목표설정(goal attainment)·통합(integration)·잠재(latency))에 대한 도식”과 마투라나(Maturana)의 인지생물학(Erkenntnisbiologie)적 이론에서 등장하는 생명체의 “자기재생산 개념(autopoietische Konzeption)”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

여, 파슨스의 네 가지 기능요소 도식에 이 “자기재생산 개념”을 수렴하여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의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취하여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행위를 분석하면, 결국 행위한다는 것(Handeln)은 A와 B 가운데에서 제한적인 자유로운 선택행동이 아닌 각각의 행위자 자신의 자기재생산적 작용에 의해 형성되어져 존재하는 정서논리체계의 상태에 의해서 상황지위된 결정행동 즉 그 정서논리체계 경과에 따르는 결정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한 행위론을 통해 위해행위의 결정구조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행위요소를 그 본래의 주류적 영역에서의 연구성과를 빌어 심도 있게 파악해 보고자 하는 시도로, 나아가 형법상 범죄행위를 논의함에 있어 그 논의의 기초로서 인지심리학적·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행위요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과학의 발달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까지 진행되어 입증되어진 과학적 사실관계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이러한 인지과학의 발달로 발견되어진 사고시스템을 통해 형법상 행위에 대한 경호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시각이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이러한 위해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과학적·예방적 사회안전 대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며, 이에 이러한 인지과학적 관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두현(2008). 경호학개론. 서울: 엑스퍼트.
- _____(2004). 현대테러리즘론, 서울: 백산출판사.
- 김두현·최병권(2008).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의 경호영어능력 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5호.
- 김종원(1995). “범죄론의 체계구성”. 고시연구.
- 손해목(1989). “사회적 행위론”. 고시연구.
- 이정모(1995). “심리학의 개념적 기초의 재구성(I): 과학이론의 재구성과 인지심리학 연구의 의의”. 한국심리학회지 13.
- _____(2003). 인지심리학 : 형성사, 개념적 기초, 조망. 서울: 아카넷.
- 이재상(2005). 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 임 우(2005). 형법총론. 서울: 법문사.
- 장기봉(2007). 근접경호론. 서울: 홍익출판사.
- Ciampi, Luc(1986). “Zur Integration von Fühlen und Denken im Licht der”, “Affektlogik. Die Psyche als Teil eines autopoietischen Systems”. Neurosen, Psychosomatische Erkrankungen, Psychotherapie, 3.Aufl., Berlin: Springer. S.382.
- Gardner, Howard(1985). *The mind's new science : A history of cognitive revolution*. New York: Basic books.
- Jakobs, Günther(1991). *Strafrecht AT: die Grundlagen und die Zurechnungslehre Lehrbuch*, 2. Aufl., Berlin: Walter de Gruyter.
- Jescheck, Hans-Heinrich(1961). “Der Strafrechtliche Handlungsbegriff in dogmengeschichtlicher Eentwicklung”, in: Festschrift für Eberhard Schmid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Jescheck, Hans-Heinrich/Weigend, Thomas(1996). *Lehrbuch des Strafrechts AT*, 5.Aufl, Berlin: Dunker&Humblot.
- Kargl, Walter(1991). *Handlung und Ordnung im Strafrecht: Grundlagen einer kognitiven Handlungsund Straftheorie*, Berlin: Dunker & Humblot.
- Maihofer, Werner(1951). “Der soziale Handlungsbegriff”, in: Festschrift für Eberhard Schmidt zum 70. Geburtstag ,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Maurach Reinhart/Zipf, Heinz(1983). *Strafrecht Allgemeiner Teil* Teiband I, 6Aufl., Heidelberg: C. F. Müller.
- Sobel, Carolyn(2001). *The Cognitive Sciences-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Mayfield Publishing Company.

Sperry, Willard(1993). "The Impact and Promise of the cognitive Revolution",
The American Psychologist Vol. 4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cogpsy.skku.ac.kr/>

<http://cogpsy.skku.ac.kr/study/study.html>.

<http://cogpsy.skku.ac.kr/200608-cogsci-%EC%9D%B8%EC%A7%80%EA%B3%BC%ED%95%99.pdf>.

http://cogpsy.skku.ac.kr/psychology_ellipsoid/정서이론개관.htm

ABSTRACT

The Necessity of A Cognitive-scientific Analysis on A Security-threat Act **-The Foundation for A Establishment of The Scientific Preventive Social-security Countermeasure-**

Kim, Doo-Hyun · Son, Ji-Young

According to dictionary, the meaning of protection is "guard and protect" that means protecting the Protectee's safety in case of sudden attack or various accident and Security means all protecting activity including Protectee and place where he is in or will be as comprehensively meaning of safe.

As you see in the definition, Protection and security is the act to protect or will to protect from a security-threat act. A security-threat act can be discussed in the range of the concept of a criminal act in Criminal Law. A security-threat act is based on criminal act in Criminal Law, we are going to review such a security-threat act in a point of view in a sphere of learning in today's remarkable a brain-neuro science and cognitive science based on cognitive psychology, and to use an analysis on such a security-threat act to make a foundation for a establishment of the scientific preventive social security countermeasure.

To do so, First of all we are going to review a security-threat act based on criminal act in Criminal Law in a point of protection police logic view. Next, we are going to introduce how cognitive science understand about act of man before we analyse a threat act as one of an act of man in cognitive science point of view. Finally, we are going to discuss the need of cognitive scientific analyse in order to establish the Scientific Preventive Social-security Countermeasure at the same time we are going to analyse a threat act in a cognitive scientific view.

Key Word : Cognitive science, Security-threat act, Criminal act, Emotion-logic system, Scientific prevention measures.